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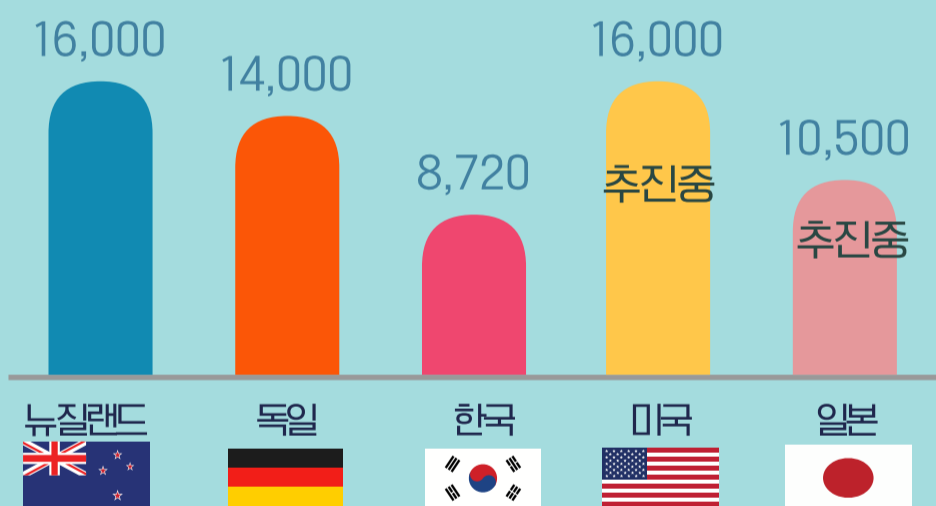
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



2년간 고작 370원 올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

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양극화-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2년간 고작 370원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코로나19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왔지만 정부는 공익위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대폭 조절하였습니다. **최저임금은 조절이 아니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.**

2021년 세계 주요국 최저임금 현황



미국은 10.95달러에서 15달러로 37% 대폭 인상함



코로나 경제 위기에도 주요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위기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

최저임금 특별 페이지 2022mw.kctu.org 접속

최저임금으로 확인하는 내가족

최저생계비

계산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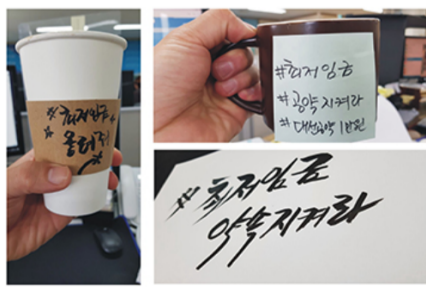


계산하기



#해시태그 SNS 올리고 커피쿠폰 받자!

최저임금 챌린지



일상생활속 최저임금 메시지를 담아 개인 SNS에 #최저임금챌린지#민주노총 해시태그를 달아 올려주세요

매주 SNS를 검색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해 5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.

SNS 검색



매주 5명 커피쿠폰!

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



✓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바꿔야

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최저임금법 1조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**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는 한가족의 생활을 책임 질 수가 없습니다.**

| 최저임금 결정기준 |



- 노동자생계비
- 유사근로자임금
- 노동생산성
- 소득분배율



현행 최저임금 결정(최저임금법 4조)은 노동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
생계비에도 못미치는
최저임금만 받고 살 수가 없음

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,720원으로 월 환산하면 1,822,480원으로 2년전 통계를 적용해도 고작 80% 미치는 수준입니다.



| 2020 통계청 자료 인용 |

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를
최저임금 인상으로 치료

2020년	경제위기라는 이유로 2.87%인상
2021년	코로나위기라는 이유로 1.5%인상

ILO(국제노동기구)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가구생계비를 고려할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, 최저임금만으로도 한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.

